



▲ 왼쪽부터 강혜정 선생님, 안흥주 선생님, 이창우 선생님, 서승현 선생님

입학하고 난 후 처음으로 가 본 27동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열심히 올라간 계단 끝, 415호가 인터뷰할 수학 강사님들이 계신 곳이었다.

기초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수학 강사님들은 총 다섯 분이며, '수학 및 연습 1'과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강의를 맡고 계신다. '수학 및 연습 1'은 수리과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학문의 기초 영역에 속하는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이다. 학생들은 수학 및 연습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비롯한 실수의 성질, 급수, Taylor 전개, 벡터 및 행렬과 행렬식, 벡터장, Green 정리, Stokes 정리 등과 그 응용을 공부하게 된다. 또한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은 3학점짜리 수리과학부 개설 과목으로 의대, 수의대, 약대, 농생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명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할 학생들을 위한 기초수학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을 넘어선 기초소양으로서 수학 과목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선생님들은 수학을 공부하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복잡한 수식이나 공식들의 내용적 측면보다도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엄밀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을 일종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는 학생, 지각하지 않는 학생, 공부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학생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상치 못했던 인상적인 답변도 나왔다.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해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고 보니 혼자서 해보겠다고 끙끙 앓다가 도중에 제풀에 지쳐서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학생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자기 혼자서 조금해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선생님들에게 찾아 와서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현재 수학 강사님들은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강의 교재의 집필과 기존 Web-work 프로그램의 보안을 준비하고 계신다.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강의와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데 양쪽에 충분히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동시에 기초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는 강의 평가 시스템을 한층 보완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교양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기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받고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 글 : 홍정민 / 사진 : 최정민